



배포 일시	2022. 9. 7.(수)		
담당 부서 〈총괄〉	도시정책관	책임자	과 장 윤영중 (044-201-3674)
	도시경제과	담당자	사무관 정정희 (044-201-3720)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	

역대 최고 비즈니스 성과 · 관람객 유치 성과

- 2022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 성황리에 개최..K-스마트시티 세계가 주목
- [계약달성] 1,178억원 [최다 참여] 23개국 301개 기관, 3만여명 방문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31일(수)~9월2일(금)까지 킨텍스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한 ‘2022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’가 역대 최대 비즈니스 실적과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폐막했다고 밝혔다.
 - 코로나-19 상황에도 불구하고 3일간 30,327명의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면서 스마트도시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.
 - 국내외 총 301개 기관이 참여해 1,548개 부스가 조성된 전시장에는 네덜란드, 몽골, 사우디아라비아 등 21개국 61개 기관에서 참석한 해외 바이어와 국내 대기업 등 43개사의 구매담당자가 다녀간 가운데 150여 차례 3,188억 원 규모의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졌다.
 - 그 결과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가로등 무선관리 솔루션, 차량운영 관리 플랫폼 등의 우수한 스마트도시 솔루션에 대한 수출계약이 체결되는 등 1,178억원의 계약추진액을 달성하여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엑스포에서 달성한 1,077억원 보다 9.4% 증가한 역대 최대 비즈니스 성과를 달성하였다.

- 개막식에서 있었던 특별대담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“한국은 우리의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기 위해 K-city 네트워크 협력사업을 통해 ‘20년부터 현재까지 21개국에 33건의 스마트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” 고 밝히면서 “개발도상국가들의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확산이 필요하고, 한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스마트도시 개발 경험과 기술을 개도국들과 공유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” 이라고 강조하였다.
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스마트도시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‘스마트 챌린지’ 를 추진하고 있는데, 금번 엑스포에서 스마트 챌린지에 참여한 인천, 대전, 부산 등 21개 지자체의 스마트도시 사업이 선보였으며, 국내외 스마트도시 분야 기업들이 개발한 스마트홈, 도심항공 서비스(UAM), 친수 정보 스마트 정수장, 도시 물 재해 대응 시스템 등 스마트 솔루션의 각축전이 펼쳐지기도 했다.

- 국토교통부는 금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의 후속으로 금년 중 스마트 도시 분야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로드쇼(태국, 튀르키예)를 개최하고, 스마트도시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산업 전시회인 ‘스마트시티 엑스포 월드 콘그레스(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)’ 에 참가하여 대한민국 전시관을 조성하는 등 한국의 스마트 도시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.

- 국토교통부 길병우 도시정책관은 “ ‘17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는 K-스마트시티 브랜드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 기회를 제공하는 산업전시회로써 우리나라가 스마트도시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” 고 평가하면서 ‘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’ 를 미국의 ‘소비자 가전전시회(Consumer Electronics Show)’ 와 같이 영향력 있는 세계적인 국제 행사로 육성해나갈 계획” 이라고 밝혔다.

□ **비즈니스 성과**

구분	WSCE 2019	WSCE 2021	WSCE 2022	'19년 대비
비즈니스상담액	2,659억원	313억원	3,188억원	19.9% ↑
계약(추진)액	1,077억원	108억원	1,178억원	9.4% ↑

□ **전시 및 관람객 수**

구분	WSCE 2019	WSCE 2021	WSCE 2022	'19년대비
참여기업(해외)	250개(39개)	185개(5개)	301개(23개)	20.4% ↑
총 면적	21,384m ²	21,384m ²	32,157m ²	50.4% ↑
참관객(외국인)	25,850명(895명)	5,520명 (온라인 24,000명)	30,327명(620명)	17.3% ↑